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이현수



키움증권

미 증시, 브로드컴 급락 및 테크주 약세에도 순환매 전개되며 혼조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4일(목) 미국 증시는 브로드컴(-12.6%)의 가이드스 컨센 하회에 따른 주가 급락 및 그에 따른 마이크론(-7.7%) 등 주요 반도체 및 테크주 약세에도, 베센트 장관의 이란 분쟁 중단 발언으로 인한 유가 및 금리 하락 속 업종 순환매 장세가 전개되면서 혼조세 마감(다우 +1.7%, S&P500 +0.4%, 나스닥 -0.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2%).

6월 이후 미국 증시에서도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주도주 역할을 했던 반도체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 여기에 전일 브로드컴발 악재로 동반 급락을 겪었다는 점은 이들 주식 보유자들로 하여금 포지션 축소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 그러나 최근 이들 주도주의 조정은 메모리 업황 다운사이클 임박, 미국 금리 급등으로 인한 할인율 압박 확대 등 펀더멘털이나 매크로 악재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었음. 연이은 신고가에 따른 시장의 눈높이가 단기적으로 높아지다 보니, 특정 이벤트 이후 차익실현에 나서려는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린 성격이 짙음.

전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나스닥이 약세를 보였으나, S&P500과 다우가 상승한 것도 같은 맥락. 미-이란 휴전 기대감, 금리 상승 제한 등이 증시 전반에 걸친 위험선호심리를 유지시켜 주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여타 지수 및 업종으로 선순환매를 이끌었던 것으로 보임. 실제로, 전일을 제외하고, 5월 이후 6월 3일까지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각각 +7.9%, +32.5%였던 반면, 다우와 S&P500은 각각 +2.1%, +4.8%에 그쳤던 상태. 국내 증시에서도 같은 기간 코스피가 +33.4%, 코스닥은 -13.9%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의 정도가 컸던 상황.

추후에도 수익률 키밋추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 금일 미국 5월 비농업 고용 포함 차주 미국 5월 CPI(10일), 스페이스 X 상장(12일) 등 주요 매크로 이벤트 및 대형 수급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반도체 및 AI주에서 여타 주식들로 수급 이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는 주도주들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현재의 장세가 하락 추세로 본격 전환하지 않는 한 주도주 비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기에, 그 변동성은 감내해볼만 하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브로드컴의 시간외 10%대 주가 하락, 달러/원 환율 급등 여파로 로보틱스 등 테마주 중심으로 급락 출발한 이후, 반도체 소부장 중심의 기술적 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낙폭을 축소해가며 코스피는 1%대 하락, 코스닥은 2%대 반등으로 마감(코스피 -1.8%, 코스닥 +2.3%).

금일에는 미국 반도체주 약세, 달러/원 환율 1,530원대 돌파 부담 등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반도체에서 비 반도체로의 업종 순환매 장세가 전개되면서 장중 낙폭을 만회해 가는 흐름을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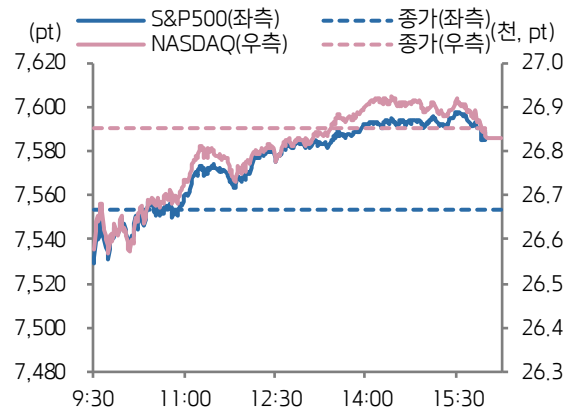
전일에도 코스피는 “장중 급락 후 변동성 확대 → 증가로 갈수록 낙폭 축소”의 패턴을 재차 연출했던 상황. 최근 증시 조정은 실적 등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라, 가파른 지수 상승 속도에 대한 숨고르기 성격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 당분간 이 같은 변동성 장세는 불가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도주의 조정 시 매수했을 때 승률이 높은 편”이라는 패턴을 시장이 학습해가고 있다는 점은 코스피의 하방 지지력을 부여하는 요인.

비슷한 맥락에서 5월 말 이후 국내 증시에 유행했던 테마인 젠스항 방한 이벤트도 재료 소진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도 주목해볼 부분. 반도체 수급 집중 현상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추후 여타 대형주 테마의 수급 블랙홀 현상(다른 업종 및 코스닥 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초래하는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

또한 최근 1주일간 반도체, 자동차, IT가전, IT 하드웨어 등 극소수 업종만 주가가 상승했던 시장 환경(Narrow Market)이 호전될 가능성도 상존. 증시 내 종목 성과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 6월 1일 상승 종목 비율은 19.0%(상승 152개, 하락 650개), 6월 2일에는 31.3%(상승 251개, 하락 550개)로 시장의 폭이 협소했지만, 전일 6월 4일에는 그 비율이 50.1%(상승 446개, 하락 444개)로 상승했다는 점을 참고해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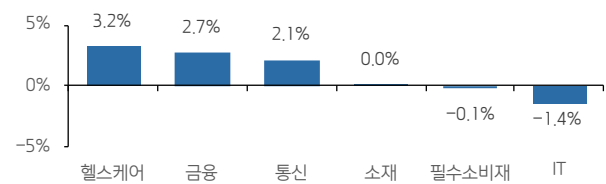
따라서,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 전략은 변함없으나, 단기 전술적인 차원에서 1) 최근 한달 동안 견조한 실적 전망에도 코스피 성과를 하회했던 증권, 전력기기, 방산, 바이오 등 여타 주력 업종, 2) 코스피 대비 소외 현상이 심했던 코스닥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적절.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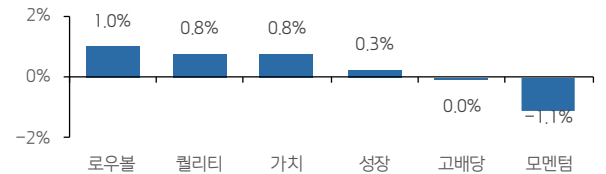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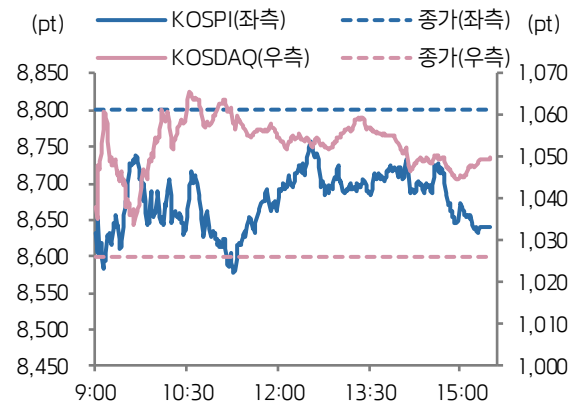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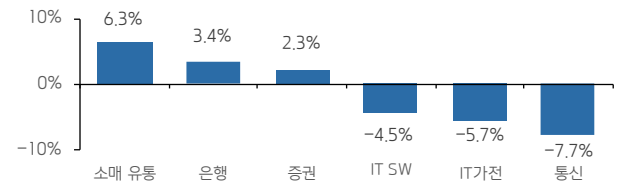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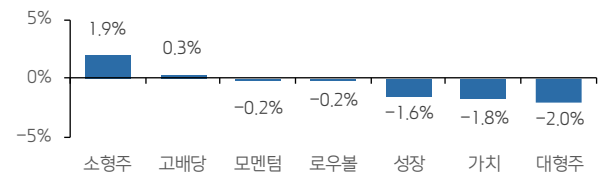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311.23	+0.31%	+24.28%	GM	83.22	+1.86%	+56.22%
마이크로소프트	428.05	+0.17%	+1.55%	일라이릴리	1,125.27	+4.31%	+45.76%
알파벳	372.19	+3.68%	+96.61%	월마트	117.74	+0.73%	+30.32%
메타	627.57	+0.74%	+7.18%	JP모건	310.89	+3.34%	+29.69%
아마존	253.79	+1.51%	+15.68%	엑손모빌	152.04	-0.32%	+41.34%
테슬라	418.45	-1.24%	+3.62%	세브론	188.35	-0.72%	+30.04%
엔비디아	218.66	+1.82%	+62.83%	제너럴일렉트릭	117.74	+0.7%	+30.3%
브로드컴	418.91	-12.59%	+80.69%	캐터필러	940.48	+1.54%	+159.26%
AMD	523.20	-3.56%	+333.15%	보잉	217.42	+3.25%	+22.84%
마이크론	996.00	-7.74%	+1083.46%	넥스트에라	85.68	+1.3%	+19.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8,801.49	+0.15%	+266.81%	USD/KRW	1,519.00	+0.4%	+3.17%
코스피200	1,407.23	+0.52%	+342.78%	달러 지수	99.53	+0.31%	-8.26%
코스닥	1,026.03	-2.29%	+51.29%	EUR/USD	1.16	-0.29%	+12.01%
코스닥150	1,807.20	-2.32%	+59.96%	USD/CNH	6.78	+0.27%	-7.6%
코스피	8,639.41	-1.84%	+260.05%	USD/KRW	1,532.00	+0.86%	+4.05%
코스피200	1,379.56	-1.97%	+334.07%	달러 지수	99.42	-0.11%	-8.35%
코스닥	1,049.73	+2.31%	+54.78%	EUR/USD	1.16	+0.12%	+12.14%
코스닥150	1,867.56	+3.34%	+65.3%	USD/CNH	6.78	-0.05%	-7.65%
S&P500	7,584.31	+0.41%	+28.95%	USD/JPY	160.02	-0.03%	+1.79%
NASDAQ	26,830.96	-0.09%	+38.94%	채권시장			
다우	51,561.93	+1.73%	+21.2%	국고채 3년	3.860	+9bp	+126.5bp
VIX	15.40	-4.11%	-11.24%	국고채 10년	4.227	+9.1bp	+135.6bp
러셀2000	2,935.33	+1.45%	+31.62%	미국 국채 2년	4.043	-3.9bp	-19.9bp
필라. 반도체	13,617.50	-2.15%	+173.45%	미국 국채 10년	4.473	-2.2bp	-9.6bp
다우 운송	21,773.03	+1.36%	+36.97%	미국 국채 30년	4.975	-1.7bp	+19.3bp
상해종합	4,057.78	-0.64%	+21.06%	독일 국채 10년	3.023	-1.2bp	+65.6bp
항생 H	8,501.91	-1.1%	+16.63%	원자재 시장			
인도 SENSEX	74,360.01	+0.02%	-4.84%	WTI	93.04	-3.1%	+39.78%
유럽, ETFs				브렌트유	95.03	-2.84%	+27.32%
Eurostoxx50	6,103.33	+0.82%	+24.66%	금	4,505.00	+0.85%	+58.03%
MSCI 전세계 지수	1,131.49	+0.13%	+34.49%	은	73.97	+0.38%	+152.96%
MSCI DM 지수	4,865.52	+0.38%	+31.22%	구리	653.50	+0.42%	+62.3%
MSCI EM 지수	1,759.07	-1.61%	+63.56%	BDI	3,124.00	-2.53%	+213.3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